
논술·구술/ 국어 교육과 인간 성장

우한용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모순 속에서

교육 망국론과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논지가 맞서 있는 가운데, 교육 현실은 혼미 속에 방황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빚어내는 각종 문제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점칠 수 없다는 논지가 교육 망국론이다. 그러나 한국이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했고 오늘의 수준에 이른 것은 교육의 힘이 아니었으면 가망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외친다.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런 혼미 가운데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가에 있다.

논술이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서 공교육 사교육 양편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에서 입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공 성격이 가미된 논술은 안 된다는 원칙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했다.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수학 능력 시험의 변별도가 그리 높지 않

고, 더구나 내신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능력을 직접 측정해 보는 데는 논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지닌다는 판단으로, 입시에 논술을 도입하지는 것이 대학의 주장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의 그러한 결정이 논술 과외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교육을 내밀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한다. 논술로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난다면, 이는 결코 대학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구술 면접’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대학 입시에서 구술 면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선발의 직접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그런데 논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술’은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학원 과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대학에서 입시의 방향을 모색하면, 그야말로 즉발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생을 유치하려고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일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 혹은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는 별개로 논술, 구술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현실이다.

대학의 입시 제도 속에서 운영되는 논술과 구술의 교육 효과가 어떠한지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만한 단계가 아닌 듯하다. 우리 현실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생활 혹은 삶의 과정이 괴리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졸업장을 들고 교문을 나서자마자 ‘추억의 앨범’ 속에 처박는다. 학교생활이 생활이 아니라 대리 체험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일 터이다.

이러한 정황에서는 논술과 구술에 대해서는 원칙론 몇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논술 구술 ‘열풍’이 현실인데,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그러나 화두로 부각된 문제는 각 방향의 모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모색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2. 교육과 평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떤 과목이든지 ‘시험에 들어야’ 살아난다. 수학 능력 시험의 경우 이를 여실히 반영한다. 수학 능력 시험이 실험 단계에서 구상될 당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세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영역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과학과 사회 영역이었다. 이들 교과목의 요구를 수용하여 과학탐구, 사회탐구가 추가되고, 이어서 다른 과목이 달라붙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당성이 희석되었다. 결국, 과연 수능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교과목을 수학 능력 시험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유는 기실 간단하다. 수능에서 배제되는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아예 안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목은 학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은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생결단을 하듯이 달려든다. 그러나 과목 간의 평등을 내세워 모든 과목을 수용한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그러한 시험의 무용성을 증거하는 것밖에 다른 효용이 어디 있던가. 본래의 목적이 오도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그런데 한편 학교 밖에서는 융성하는 과목이 학교 교육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 밖에서는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데도 소설을 읽고 시를 감상하며 즐긴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학생들의 반응은 달라진다. 교과서가 재미없다는 불평에서 비롯하여, 교육 결과가 문학을 즐기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도 있다. 문학이 교실에 들어가면 혐오의 대상이 된다. 문학이라면 진저리를 친다. 이는 교과목의 내용이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특히 제도 교육에 대한 심정적 반감에 그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싫다, 그런데 문학은 교육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학은 재미없다는 식의 오도된 사고의 연결 고리 가운데 학생들은 방황한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논술과 구술을 교과로 설정하여 가르칠 경우, 앞의 예와 같은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학교에서 논술 과목을 가르칠 경우, 현재로서는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우선 교과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논술을 가르칠 교사 양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논술의 기본 성격을 글쓰기로 본다면 국어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것인데, 현실 여건으로 보아 국어 교사가 그 부담을 견뎌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의 교수 학습 방법을 논술 형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논술은 끊임없이 입시 시장을 떠돌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구술을 가르칠 경우도 문제가 간단치를 않다. 우선 구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구술이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말하기 혹은 화법의 일반적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기술적인 책략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술을 가르칠 교육 인력이 준비도 안 된 상황은 논술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것이지만, 학교에서 구술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구술을 학교에서 익힐 수 있고, 구술로 표현되는 형식 안에 지식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계에서 이런 합의된 대책이 있기 전에는, 입시생들은 싸구려 언어 시장을 전전하며 그야말로 당의정(糖衣錠) 모양의 지식이나 언어 가지고 대학 문전을 어슬렁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와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빚으리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몰고 올 것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가중하게 된다. 그렇게 나간다면 교육의 장래를 밝게 전망할 방법이 없다.

3. 언어문화와 논술, 구술

논술과 구술은 우리 언어문화의 국면들이다. 논술과 구술이 언어문화로 수행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하는 데 글을 써서 주장을 펴고, 말을 통해 대상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인간적 교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스런 일이 교육에, 특히 입학시험에 적용되는 순간 자연스러움이 깨진다. 논술이나 구술이 대학 입학시험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언어문화의 영역을 넘어 교육 문화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언어문화가 교육 문화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는 교육 문화의 맥락에 따라 평가되고 비판을 받게 된다. 언어문화가 교육 문화의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고보다는 왜곡된다. 이는 우리 교육의 역사가 그리고 현실이 만들어 놓은 답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왜곡 가운데 하나가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을 제약하는 정책이다. 대학의 입학 제도가 고등학교 공교육을 왜곡한다고 하지만 실증적 검증 기회는 없었던 셈이다.

문화라는 말의 내포는 실로 넓다. 마찬가지로 언어문화라는 용어 또한 그 뜻이 다양하다. 일차적으로 언어문화는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 전반을 뜻한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고 유형, 표현 방식, 언어를 운용하는 중에 드러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언어문화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한국어로 표현된 각종의 문헌 자료는 언어문화의 실체가 되기도 한다. 종교, 사상, 문학 등 한국어로 쓴 저작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 한국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언어 운용의 형식 또한 언어문화 개념에 포함된다. 논술이라든지 구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가 언어문화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은 기록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시대의 ‘독서삼품과’는 독서인을 국가의 인재로 등용하는 방법이었다. 고려 이후 과거 제도에서 언어 운용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관리로 등용했다. 이러한 제도는 언어 운용의 양식이 언어문화로 정착된 사례이다. 전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단아하고 엄숙한 몸가짐과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 남의 심금을 울리는 글솜씨 그리고 명철한 판단력 등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대부분이 언어 혹은 언어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화의 교육 작용에 대해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론자

가운데는, 문화를 삶의 양식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를 기술해 보여 줄 수 있을 뿐이지 그 가치의 높낮이를 쟁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문화가 삶의 양상인 것은 사실이되 그것이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 따라서 문화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의 의지가 형태화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논술과 구술이 우리들 언어생활의 가치 지향성을 보여 주며 교육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가치 개념이 매개되지 않는 문화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서 대학 입학시험에 논술과 구술이 동원되면, 학교 안팎으로 논술과 구술을 위해 총력을 동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경사된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 전체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풍토가 그러한 유연성 있는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평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논술과 구술이 대학 입학시험에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오도될 소지를 안고 있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이런 균형 없는 집착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논술과 구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 안에서 탄생하여 문화 맥락에 따라 교육받으며,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공적 교육에서 수행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이후 이어지는 교육의 지표를 만들어 가게 된다. 물론 문화적 자생성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어문화로서 논술과 구술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상의 이용 가치보다는 그것이 교육의 장에서 지니는 본원적 가치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문화로서 논술과 구술의 이상형을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언어적 소외와 그 극복

한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어적 민주화는 민주화 정도의 지표가 된

다. 달리 말하자면, 민주화의 궁극적인 경지는 언어적 민주화를 성수(成遂)하는 일이다. 언어적 민주화는 두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하나는 언로가 트인 상황, 언어적 소통이 유연성 있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향이다. 이는 하버마스 등이 주장하는 소통의 윤리를 떠올리게 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 간 나아가 계층 간의 언어 격차(linguistic divide)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언어 격차는 사회 경제적 수준의 격차를 반영하는 언어의 차별성, 의식의 격차를 반영하는 차별성 등으로 구체화된다. 글쓰기와 말하기로 수행되는 논술이나 구술은 개인의 언어생활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그 말과 글의 주체이다. 이는 추상적 개념의 주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남과 교섭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주체이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주체이다. 메를로 폰티의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는 개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존재(être au monde)’로 살아간다.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에 선고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이름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다.”(지각의 현상학, 31쪽)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에는 힘이 실리고, 그 힘은 남에게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과 윤리가 수반된다. 말의 책임은 주체를 스스로 명시하는 데서 생겨난다.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풍조,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의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책임 회피적인 화법이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어떤 시상식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수상자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대답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하는 장면에서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감격’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 자기 말을 남 말 하듯이 하는 경우이다. 어떤 일이 있어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는 경우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만큼 떼어 놓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주체에서 돌려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세계를 향한 자기 개시가 아니라 자기 내부로 웅크려 들기인 셈이다.

자기 말에서 자기를 빼 버리는 것, 이는 주체를 남에게 이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생각하게 된다. 남에게 자유를 넘겨주고, 그 대상에 복속해서 나의 주관적 결단과 실천이 야기하는 괴로움을 외도려놓는 심리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도피가 예종(隸從)의 길을 가게 하듯이 언어적인 실천에 책임을 돌려놓는 일 또한 ‘언어적 예종’의 길로 주체를 이끌어 간다. 달리 말하자면 자기 언어에서 주체 스스로가 소외되는 자기 소외 현상을 불러온다. 언어를 운용하는 이들의 언어적 자기 소외는 결국, 그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의 주권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논술과 구술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운용되지 않고, 대학 입시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면 이는 언어적인 자기 소외에 빠지는 결과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입학시험의 성격이 언어 운용의 맥락을 그렇게 조정하게 된다. 논술이나 구술이 정상적인 언어문화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언어 사회의 환경이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입시에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사실 입시만큼 언어 격차가 현격한 상황을 달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시험관 앞에서 수행되는 논술과 구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고려’하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세워 나가기 쉽지가 않다. 언어적 책임을 시험관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 당당한 주체로 언어를 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입학시험 이전에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5. 학술어와 일상어의 거리

언어문화가 제대로 성숙된 모습으로 되려면, 한 사회 안에서 언어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언어 혹은 언어 능력은, 부르디외의 개념으로는 일종의 ‘문화 자본’이다. 문화 자본은 힘 혹은 권력의 형태를 띤다. 한 개인이나 사회가 문화 자본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은 곧 그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 준다. 간단히 말하자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과 그렇

지 못한 사람 사이의 능력의 편차가 극소화된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현실은 언어 격차가 현격한 것이 사실이다.

언어 격차는 사회 계층의 분화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이는 사회 언어학의 연구 결과 이미 두루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한편 교육의 수준이 언어 격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교육을 받은 계층의 전문어와 일상어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문가들 집단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전문어(jargon)라 한다. 해당 집단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전문어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의미를 소통하는 데는 일상어보다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식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언어의 소통은 구성원의 결속을 꾀하는 데 기여하기까지 한다. 문제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과 일상인 혹은 일상인 집단 사이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장애와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일상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언어 격차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정서적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의 박탈감과 괴리감이 언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법률 언어는 법의 혜택을 받고 사는 이들을 지향한다. 한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져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난잡한 용어 때문에 법의 피해를 본다는 호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유를 위해 처방하는 언어가 환자의 이해를 얻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약품의 설명서가 일상인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의 사용법을 설명한 글이 내용을 알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어와 일상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자국어에 대한 지식 또한 지역 간의 언어 격차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자국어의 문법 혹은 문법 지식은 교양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문법 의식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어를 지키는 일이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일과 같은 가치를 지니던 시대와는 상황이 달

라진 것이다. 국어에 대한 전문적 혹은 교양적 지식의 결핍은 자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언어 격차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해당 언어의 언중(言衆)이 자기 언어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결국 그 언어의 수준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어떤 언어권의 언어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휘량이 그 지표가 된다. 어휘량은 문화적인 집적물이기 때문이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경우,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설득력의 제일 조건이다. 이 어휘량에 학술어와 일상어가 함께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삶의 영역이 통합되면서 학술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전이된다.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보편화되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누구나 경제, 문화, 과학, 철학, 역사 등의 전문어를 생활로 이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어와 일상어가 상호 간에 층위 상승을 부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언어 층위 간의 대화를 뜻한다. 언어 수준이 다른 계층 혹은 집단의 대화는 언어의 수준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논술이나 구술은 학술적 전문어와 일상어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전문어와 일상어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학 입학시험의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분명 우리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6. 논술-구술과 인간 성장

언어 활동의 수용과 창조라는 두 국면은 대체로 이해와 표현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왔다. 맥락이 좀 다른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자하연’ 식당 입구에 쾌문(快聞)이라는 글씨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상쾌한 소문 또는 삼상한 소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달리 해석해 보면 ‘잘 들어라’ 하는 뜻으로도 읽힌다. 잘 듣는 것이 말을 잘하는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를 논할 여가는 없다.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듣는 과정이라 해도 지나

치지 않다.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나, 지식의 습득은 일차적으로 말을 듣는 일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해에는 공감과 비판이 포함된다. 지식은 일방적으로 주입되지 않는다. 교사의 설명을 알아듣고 그것을 자아의 의식 내부에 저장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역동적인 언어적 변형을 거친 결과이다. 듣기 자체가 생산적인 지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구술의 경우, 지금 수행되는 방식은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술은 대체로 간단한 문제를 주어 읽고 생각한 다음 답을 하게 하는 형식이다.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한다. 이는 매우 부자연스런 언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이다.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듣기의 이상적인 지경을 장자는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 “문불언지언(聞不言之言)” (장자 잡편 서무귀) 말로 언표되지 않은 말을 듣는 그러한 경지. 잘 들으려면 자기의 표현 욕구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말하려는 욕심이 귀를 막게 한다. 자기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 남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구술에서 간단한 문장을 주고 읽게 한 다음 거기 답하게 하는 방식은 들을 기회를 안 준다는 점에서 말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런 듣기와 말하기가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 입시에서 수행되는 구술에 대응하기는 실로 난감할 것은 물론이다.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듣고 말하는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거듭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논술에 대해서도 반복한다는 것은 참담한 심정에 빠지게 한다. 학교 교육에서 하지 않는 논술을 입학시험을 위한 도구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쳐야 한다. 논술이라는 교과를 따로 만들 일은 아니다. 물론 수학이나 과학처럼 전적으로 논술 방식에 의존할 수 없는 교과 영역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과목까지 논술로 가르치자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어, 사회, 역사, 지리, 도덕 혹은 윤리 등의 교과 영역에서는 교수법을 논술로 전환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 일반화되

어 있는 ‘에세이 쓰기’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이렇게 전환한 이후, 그리하여 글쓰기가 학교 교육에 자리잡은 이후 논술이 대학교 입학시험의 방법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논술이 대학 입시에 동원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폐단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몇 대학에서 ‘통합 논술’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통합은 영역 간의 통합과 사고의 전환이라는 두 방향이 있을 것이다. 영역 사이의 통합은 자연 과학과 인문 과학, 혹은 사회 과학 등의 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논술의 전범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예로 들 만하다. 우주와 지구의 이야기를 하는 자연 과학자의 책이면서 인문학적 통찰과 예지로 가득한 책이다. 과학 지식의 통합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과학도 인간의 여타 문화 활동과 총체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과학과 과학 이외의 문화 활동이 서로 격리되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하는 토마스 헉슬리는 지식의 탐구가 인간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얕은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는 끝이 없다. 지성에 관한 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끝없는 무지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섬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이런 의무가 언어생활과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지식의 대통합을 구상하는 사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책 <통섭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에서 “유전자-문화 공진화(共進化)”를 주장한다. 자연 과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와 인문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화가 함께 진화하는 것은 “뇌의 진화와 예술의 기원의 기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술적 영감의 뿌리는 인간 뇌의 유전적 기원까지 심층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렇기에 항구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이어 과학과 예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생물학적 이해가 예술에 대한 학문적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도 결코 창조적 예술을 가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절묘하게 강화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복잡한 세부 사실들을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예술의 독점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통섭, 377쪽)

통합 논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발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구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인간의 자아 성취로 드러나는 성장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적 의의가 자못 심대한 사항이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 두고 싶은 게 있다. 논술이든지 구술이든지 그것이 모국어로 운용되는 국어 교육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모국어와 정신 형성>이라는 책을 낸 독일의 언어학자 바이스게르버의 말이다. “모국어의 공유자라는 것은 모국어의 보존과 형성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모국어와 정신 형성, 168쪽) 모국어에 대한 이러한 책임이 수단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가 근원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보다 시험이 앞설 수 없는 일이다. 논술이든 구술이든 학교 교육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루어져야 모국어의 형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